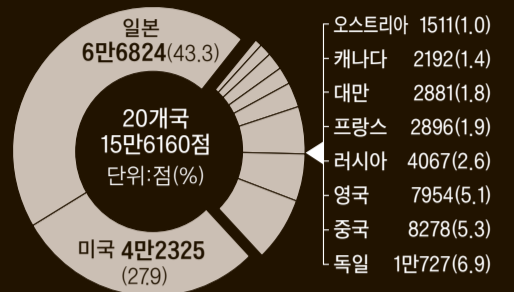


# 조선칼 찾아낸 미국인 “수장고서 잠자는 보물 안타까워”

<코리아 아트소사이어티 텔리 회장>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 (2013년 8월 기준)



※ 환수한 문화재: 9760점 (5139점은 2001년 이후 반환)  
자료: 문화재청·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1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수장고에 소장된 조선 검. '일본도'로 잘못 표시돼 있다. 2 뉴욕 맨해튼 참고건물 내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KAS) 회장 로버트 텔리의 '소형 한국박물관'.

한국 문화 사랑하는 모임 이끌며  
수시로 박물관 찾고 전시회 기획  
요란스런 반환운동은 역풍 불러  
상호대여 등 유연한 전략 필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참고건물 방에 들어선 순간 눈이 번쩍 띄었다. 수 천 점의 고서를 비롯, 서화·도자기 등 한국 골동품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소규모 한국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이 방의 주인은 미국인 로버트 텔리(53)다. 그는 2008년 뉴욕에서 자신이 설립한 한국 문화 비영리단체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KAS)'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6년 사이 KAS의 회원은 5000명으로 늘었다. 텔리 회장은 "국적과 직업을 불문하고 순수하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소개했다. 그가 주축이 돼 회원들은 매년 수 차례씩 한국 문화재가 있는 미국 내 박물관을 방문

하거나 한국 관련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한다. 2012년에는 미국에서 한국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해 진귀한 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기회도 가졌다. 여기서 일본도로 둔갑한 조선 검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국보급 보물들이 좁은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장고에 있는 한국의 도검 등 무기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어달라고 박물관 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S는 최근 뉴욕에서 한국 문화재가 대량 포함된 '리 스나이더 컬렉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텔리 회장은 "강제로 약탈된 문화재는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나 해외 유출 한국 문화재 찾기를 하는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돕고 싶다"고 말했다.

KAS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문화의 홍보와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도 많다. 일본에선 한·일 병합 100주년인 2010년 6월 12일 도쿄에서 '한국·조선 문화재 반환문제'를 생각한다'라는 공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문화재 반환문제 관계자들은 연락회의를 발족시키고 이후 꾸준히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 못지 않게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를 잘 활용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이소영 한국미술 담

당 큐레이터는 "한국실의 규모도 그렇지만 전시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한국 문화재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유물 자체가 너무 적어 박물관에 채워 넣기도 어렵다"며 "국내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유통 가능하게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반가사유상 등 500여점의 한국 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불법 해외유출 한국문화재 반환운동 방법론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보아(아트&테크놀로지학과) 서강대 교수는 "반환협상 과정에서도 상호 대역라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약탈문화재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정규홍 서울강현중 교사는 "소재와 경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의 개별적인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란스럽게 반환운동을 벌일 경우 역풍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영찬(사회교육과·한국고대사) 이화여대 교수는 "어떤 면에서 공격적인 환수 운동은 상대방 국가를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며 "실제로 이 때문에 해외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잘 보여주지도 않아 연구활동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뉴욕·한경한 기자 helmut@joongang.co.kr

**앞선 기업가라면, 주목하십시오!**

중소기업 경영지원컨설팅 전문가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업 재무컨설팅의 No.1 피플라이프와 국내 최고 경제미디어 포털 매경닷컴이 함께 만든  
중견 중소기업 전문 경영지원 서비스 전용기구, 매경경영지원본부에 알고 계세요?  
매경경영지원본부의 법인 자산관리 및 경영 효율화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앞서가는 매경경영지원본부의 원스톱 토탈 컨설팅(One-stop Total Consulting)을 만나보세요!

신환경 인터리어 표면제 (PP) 전문 제조기업  
**데코벨리(주)**  
대표이사 송영관

우에 피플라이프  
재정지원 팀장 박성일

---

**매경경영지원본부 금융로드쇼에 초대합니다**

2014년도 마지막 달, 대표님 회사의 세무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너경영 핵심세무리스크 해결전략 세미나”**

일시: 2014년 12월 16일 (화) 14:00~17:00  
장소: 경기테크노파크 본관 1층 다목적회의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내용: 1부 - 오너경영의 핵심세무리스크 (세무법인 세종 TSI 광종철 대표 세무사)  
2부 - 기업 노무운영 효율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황유진 책임 노무사)  
대상: 중소기업 CEO 및 경영실무진 15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 10,000원  
참가신청: Tel. 1800-9440  
홈페이지 (life.mk.co.kr) 접수

대한민국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

상담문의 | 1800-9440 http://life.mk.co.kr

## “일본, 개인 소유 문화재 반환 약속 안 지켜”

왕실의례 반환 도운 아라이 교수  
“일본 내 6만점 아닌 30만점 있을 것”

“애써 문화재를 반환했더니 제대로 전시하지도 않으면서 돌려준 것만도 못하지 않나” 일본의 양심으로 추앙받는 노학자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스루가다이대 명예교수(88)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서렸다.

아라이 교수는 “조선왕실의례” 등의 반환을 도운 시민단체 ‘한국·조선 문화재 반환문제 연락회의’를 일본에서 결성할 땐 지금껏 이끌어 왔다. 그를 지난 9월 도쿄에서 만났다.

-연락회의의 발족 계기는

“그간 서둘러, 하버드대 등의 학자들과 함께 10년간 정치·외교·군사 분야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러다 2010년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아 문화재 분야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루게 됐다. 이 무렵 당시 간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마침 궁내청 조선왕실의례를 반환할 움직임을 보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결성하게 됐다. 그게 연락회의로 이어졌다.”

-일본 내 한국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한국 문화재청은 6만여점으로 발표했지만 30만점은 될 걸로 추산된다. 상당수가 일제 때 왔지만 그 전 도쿠가와 막부 시대 때 조선통신사 등을 통해

전해진 것도 많다.”

-도굴 등 불법적인 입수 방법도 많지 않았나.  
“한일합방이 이뤄진 뒤에는 총독부가 있어 함부로 도굴하지 못했다. 도리어 1904년 러일 전쟁 후 합방 때까지 6년 간의 혼란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시켜 도굴했다.”

도쿄대 서양사학과 출신의 그는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해온 대표적 지식인이다. 학도병 경험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 일본의 전쟁 범죄 및 책임 문제를 연구했다. 2005년에는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사료를 내놓기도 했다.

-문화재 반환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나.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으로 반환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합의된 의사록을 보면 ‘일본 개인 소유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면 양국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므로 일본 정부는 이를 장려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 측에 당부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일본인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정치적 이슈화하면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쿄·남정호 기자

namjh@joongang.co.kr

※ 이 기획은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아라이 신이치